

"2025년 하반기 전국 직업병안심센터 워크숍 성료"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9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직업병안심센터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안전보건공단, 전국 직업병안심센터 소속 직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직업병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워크숍 첫날(9월 4일) 워크숍에서는 ▲직업병안심센터 운영 당부사항 ▲운영 관련 공지사항 ▲밀폐공간 질식·중독 재해 예방 특강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서울, 경기북부,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세종의 각 지역 직업병안심센터가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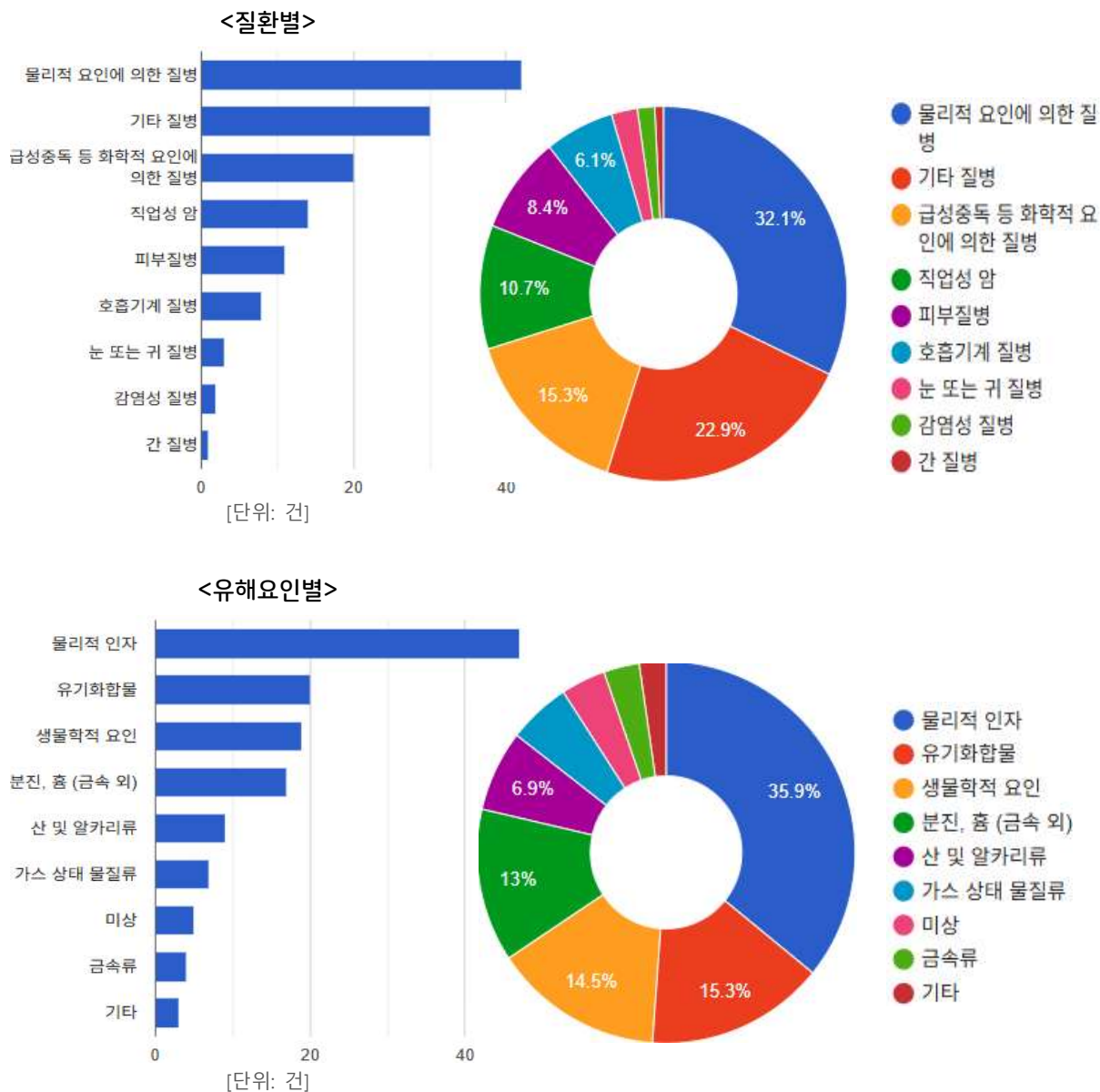


워크숍 둘째 날(9월 5일)에는 전국 10개 직업병안심센터 소속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직업병안심센터 이동욱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직업성 질병 보고 통계 시스템 분류체계 개편 사항 ▲유해인자 및 화학제품 분류체계 등을 주제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업성 질병 보고 통계 시스템의 입력 방법과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며 시스템 활용을 독려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 직업병안심센터 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직업병 예방과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센터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5년 08월 (2025.08.01.~2025.08.31.)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부직업병안심센터에 총 131건의 직업병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42건, 기타 질병 30건,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20건, 직업성 암 14건, 피부질환 11건, 호흡기계 질병 8건, 눈 또는 귀 질병 3건, 감염성 질병 2건, 간 질병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물리적 인자 47건, 유기화합물 20건, 생물학적 요인 19건, 분진, 흙 (금속 외) 17건, 산 및 알칼리류 9건, 가스 상태 물질류 7건, 미상 5건, 금속류 4건, 기타 3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방역 작업자에서 발생한 양측 손발 저림 및 마비”

40대 여성으로 화장실 방역 작업하는 분으로 2025년 08월 06일 화장실 방역 시 사용하는 소독제(델타메트린 성분)가 묻은 장갑으로 얼굴 만진 뒤부터 양측 손발 저림 증상과 혀가 꼬이는 듯한 마비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양측 손발 저림 증상과 혀 마비 증상 호소하여 수액공급 후 증상 완화되었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 외래 진료 하기로 한 뒤 응급실을 퇴실하였다.

환자가 방역 시 사용한 소독제 델타메트린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현재 농업용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방역용, 특히 가정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대부분이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이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노출되었을 때는 주로 감각 및 운동 신경을 반복적으로 흥분하는 신경독성을 나타내는데 이 독성 작용은 대부분 과민반응, 전율, 운동장애, 경련 그리고 마비 등을 일으킨다.

치료제는 증상에 따른 보존 치료가 대부분이며 해독제는 따로 없으며 반감기가 대부분 24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체내 잔류성은 거의 없고 치명률은 높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 및 관리 대책

1) 소독 작업 시 안전수칙 및 작업 관리 지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 대부분은 저독성의 약제로서 인체 독성이 낮으나, 일부 약제들은 매우 독성이 강해 방역 노동자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살충제의 이용은 충분히 훈련된 사람에게 제한되어야 하고, 라벨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용 보호구

- 유기용제용 방독마스크(방진필터 겸용), 보호의, 내화학성 장갑, 보안경, 필요 시 불침투성 보호의

2. 약제 및 살포기 보관

-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 자물쇠로 잠가 접근 제한, 음식물 및 농산물과 분리 보관

3. 살포기 사용 및 관리

- 손잡이·호스 뚜껑 파손 여부 사전 점검, 사용 후 물로 세척 후 보관, 노즐 막힘 시 입으로 불지 않고, 나무 도구로 조작 후 세척

4. 살포 작업 방법

- 바람을 등이나 옆으로 받고 작업, 살충제 입자가 작업자나 장비에 닿지 않도록 방향 조절

5. 작업 시간 및 위생 관리

- 하루 4시간 이상 작업 금지, 작업 중 음주·흡연 금지, 음식·음료 섭취 전 손과 얼굴을 비누로 세척

2) 소독제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

소독제에 따라서는 중독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속효성(수분~수십 분)인 것과 수 시간 후에 나타나는 지효성인 것이 있다. 약제에 의한 중독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살포 기구의 완전 점검

2. 약제의 운반 및 보관의 철저

3. 약제 살포 책임자, 감독자와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 교육

4. 의사-환자 사이에 신속한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 망의 설치

5. 작업자의 보호 기구로서 모자, 베일, 옷, 고무장화, 장갑 및(방독) 마스크 등의 착용 의무화

6. 사용한 원제 및 제품 용기의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역 작업에 사용하는 소독제가 저독성으로 알려진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라 하더라도, 노출 경로나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 작업 시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이 필수이며, 소독제에 접촉되면 즉시 노출 부위를 세척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정 기간 살충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자는 정기적으로 중독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대한직업환경의학회(편). 직업환경의학. 계축문화사. p.500-501

대한예방의학회(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2권. 계축문화사. p.711-7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항공기 청소노동자의 직무 및 노출가능 유해인자 특성 연구(2018)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5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

